



전북출신20대 국회의원 축하연... 지난달 3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재)재경전북도민회와 전북출신 국회의원모임, 전북일보사 주최로 열린 전북출신 20대 국회의원 당사 축하연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송하진 도지사,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송현섭 재경도민회장을 비롯하여 당선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난해 1만6,183가구 전북에 귀촌

30대 22.6%로 최고 비율 · 1인 가구 75.5% 차지... 귀농 1,164가구 · 귀어 86가구

지난해 1만여 가구를 웃도는 귀촌민이 전북에 등지를 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에서 농사와 어로작업 등 직업을 통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귀농·귀어 가구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 농·어촌에 정착하는 귀촌 가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30일 공동 발표한 '2015년 귀농·귀촌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귀촌가구는 모두 1만6,183가구로 조사됐다.

연령대로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전북 귀촌인을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3,663가구로 전체의 22.6%를 차지했으며 40대는 3,470가구로 21.4%, 50대 3,338가구 20.6%, 20대 2,395가구 14.7%, 60대 1,902가구 11.7%, 70대 1,415가구 8.7%를 나타냈다. 귀촌가구 대부분은 1인 가구였다. 도내 귀촌가구 현황을 보면 1인은 총 1만2,224가구로 전체의 75.5%를 차지했다. 이어 2인은 2,577 가구로 15.9%, 3인은 978가구 6.04%, 4인 404가구 2.4% 등의 순이다. 귀촌 가구는 도시지역을 벗어나 농

어촌 지역에 주택 등을 짓고 생활하는 가구를 일컫는데 이들 귀촌가구는 낮에 도시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귀농·어 가구는 소득 확보를 위해 직업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한 가구를 말한다.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전북지역 농촌에 정착한 귀농가구는 지난해 1,164가구로 전국 9.1%를 차지했다. 시도별로는 경북 귀농가구가 2,221가구로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전남(1,869가구), 경남(1,612가구), 충남(1,374가구)에 이은 4번째다. 도내 귀농가구의 가구원 수는 1인

이상이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이처럼 1인 귀농가구 비율이 높은 것은 가족은 직장생활과 학업 등으로 서울이나 경기 등 도시에 남아 있고 가구 혼자 농사를 짓기 위해 농촌지역에 정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내 귀어가구도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어로활동을 하기 위해 도내 어촌에 정착한 귀어가구는 총 86가구로 전남(343가구), 충남(340가구), 경남(91가구) 등의 순이었다. 도 관계자는 "저성장 고용불안과 도시생활에 따른 주거비 비용 증가 등으로 귀촌가구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도, 농업진흥지역 2008년 이후 대폭 개편

6차 산업화 시설 설치 위해... 3,842ha 해제 · 3,238ha 보호구역으로 변경

전북도가 농업의 6차 산업화 확대를 통해 농촌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농업진흥지역을 대폭 개편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3,842ha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고 진흥구역 3,238ha는 보호구역으로 변경한다. 이 같은 조치는 1992년 국가식량확보 차원에서 우량농지로 지정된 곳들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지투리 지역으로 변모하는 등의 변화에 따른 조치이다.

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농지의 집단을 통한 농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무엇보다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확대할 수 있는 국토계획법상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도는 2007년~2008년 이후 10여년만에 2번째 정비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은 총 3,842.2ha로 전체 농업진흥지역(143,335ha)의 2.7% 정도이다. 지역적으로는 완주 1,137.1ha, 남원 319.9ha, 순창 307.9ha, 고창 276.4ha 등이다.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총 3,238ha로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2.3%를 차지하며 지역적으로는 남원 439.7ha, 순창 416.7ha, 김제 354.3ha, 고창 329.5ha, 임실 328.3ha 등이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은 주변의 여건변화에 따라 3ha이하로 남은 자투리 지역들이 주요 대상 지역이며 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지역도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 3~5ha이하로 남아 농지 집산화나 시설 건설에 방해가 되는 지역들이다. /정영수 기자

앞으로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에는 도시관리계획과 용도지역에 따라 6차산업시설, 뉴스테이, 제조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또한 농업보호구역 변경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농업보호구역 허용행위가 이어지고 농업의 6차산업화 및 농수산업 관련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도는 이번에 해제·변경되는 지역은 각종 농업 6차산업화 관련 시설의 설치 가능해짐으로써 전라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부지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도 농축수산물국 김승국 국장은 "앞으로도 농지로서 이용효율이 낮은 지역은 보완·정비하고, 우량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집중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주)에센테크, 군산 이전 MOU 체결

인천 본사 · 공장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으로 70억 들어

인천에 소재한 황동 합금 밸브 생산업체 (주)에센테크의 본사 및 공장을 군산자유무역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투자협약식(MOU)이 개최됐다. 지난달 30일 전북도청에서는 군산시와 정북도, 군산자유무역지역, 기업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식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주)에센테크는 이달 초부터 군산자유무역지역 내 표준공장 70억 원에 본격적인 이전을 시작한다. 1985년 설립된 (주)에센테크는 LPG 밸브, 초정밀 황동단조 가공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가스·자동차·조선분야 등 다방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황동 부속품 등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업체다. (주)에센테크는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신기술 인

증 취득 및 세계 일류상품 선정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두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인천 남동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 본사를 군산자유무역지역 내로 이전, 3300㎡ 부지에 70억 원을 투자하게 된다. 연매출 1000억원에 달하는 이 업체가 이전하게 되면, 상시 고용인원 250여명에 80여명의 신규인력 채용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취업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에 투자를 결심한 (주)에센테크의 이전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기업이 원활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전북도, 가축질병 방역관리 대책 추진

전북도가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잠마와 무더위 등으로부터 가축질병을 막기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가축질병 방역관리 대책'을 중점추진한다. 이에 가축질병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예방요원(363명)을 동원해 무더위 사망관리 및 방역관리 요령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또 각 농가에서 잠마철 속사 내·외

부 소독을 강화하고, 물웅덩이(모기 서식지) 제거 등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차광막과 환풍기 설치 여부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침수 등으로 폐사축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처리해 2차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가축질병발생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전화(1588-4060/9060)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남원 렉스틸, 이란과 파형강관 수출 계약

ATLAS SABAT사와 200만불 어치... 중동 수출 교두보 확보

남원시 판치산업단지 입주하고 있는 렉스틸이 이란 최대 파형강관 시공회사인 ATLAS SABAT사와 200만불 상당의 파형강관 수출 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 이후에 이어 이란에 진출함으로써 중동 수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파형강관 전문 생산업체인 렉스틸은 2013년 창업 이래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개선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에 처음 파형강관을 수출한 이래 영국·러시아·EU 등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해 왔으며, 지난 한 해에만 150만 달러를 수출했다. 렉스틸 김영민 대표는 "이번 이란 진출을 계기로 중동과 아랍지역에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계기로 다른 제품들의 판매에도 긍정적인 역할이 되도록 노력하여 격

변하는 세계 시장에서 수출이 좀 더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란주 남원시장은 수입 계약자 남원을 방문한 ATLAS SABAT사와 렉스틸의 관계자들을 시흥으로 초대하여 계약을 축하하고 "수출입에 따른 애로사항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해결하여 양사간의 무역이 앞으로도 계속되고 점차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남원시에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관내 기업들의 각종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고 한국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수출직 다변화와 정보 공유를 위한 설명회를 지난 21일 남원시청 강당에서 개최한바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북도 공고 제2016-796호

『국가지질공원』인증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자연공원법」제36조3에 의하여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을 위한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
2. 공청회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일 시	진안군	무주군
2016. 7. 11(월) 10:00	진안군 산악초전시관 회의실(2층)	2016. 7. 12(화) 14:00
장 소	진안군 산악초전시관 회의실(2층)	설천면사무소

※ 진행: 용역추진 경과보고, 전문가 주제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3.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개요
 - 가. 공간적 범위: 진안, 무주군 주요 지질명소 일원
 - 나. 시간적 범위: 2015 ~ 2016년(2년)
 - 다. 주요내용
 - 1)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지질명소 발굴 및 가치 평가
 - 2) 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 계획, 지질명소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등
4. 기타사항
 - 가.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을 위한 이번 공청회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16. 7. 7(목) 18:00한
 - 제출방법
 - 서면제출: 전라북도청 자연생태과, 진안군 관광개발사업소, 무주군 환경산림과에 직접 방문제출 및 FAX(063-280-4169, 430-2560, 320-2339)로 전송
 - E-mail: mcldave@korea.kr, doldam1420@korea.kr, lshtom@korea.kr로 전송
 - 나. 기타 문의사항은 전라북도 자연생태과(063-280-4178), 진안군 관광개발사업소(063-430-8754), 무주군 환경산림과(063-320-2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6. 30. 전북도지사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